



'내가 없다' 이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가족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산천초목과 더불어 우주 전체를 한마음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비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저 집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갔어." 하고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어." "잘 죽었어." 하고 추궁대거든요. 그게 무슨 까닭 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한 철 살면서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와 나와 부딪치지 그렇지 않으면 부딪칠 리가 있나? 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딪침이 있으니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주 법계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참,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조건 없이 일체제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 앞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마음이므로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세생생 여래의 집에 뜻을 같이 하고 우주 전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퀴의 생산체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한마음 도리를 배우는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써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무술 하는 사람들이 신검을 만들려면,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기술자가 되려면 거기에 포괄적인 마음으로써 정성을 다해서 내 혼을 다 집어 넣어 아반이 기술자가 되고 신검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이 소립니다. 그 신검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받칠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그 대의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으로 쓴다면 그 자비의 마음이 즉 신검, 자비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나의 무명 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세상만사가 모두 같이 돌아가는 돌 아닌 법을 알기 위함이고,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같이 사랑하면서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그 섭류를 모두 터득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다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몸뚱이 자체가 영원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몸뚱이가 사대로 흘

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서로 서로 통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돌이 아니듯이, 즉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물이지 어찌 개개의 빗방울이었습니까? 그래서 개개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이며,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생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진화해서 다시 태어나고, 모습을 같아서 다시 태어나고 발전이 돼서 다시 재현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이러한 그 자체로서 바로 생산체라고도 합니다. 자동적인 생산체!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번 올렸다 하면 생산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바뀌어 재현이 돼서 자꾸 생산이 돼서 영원히 그칠 바가 없이, 즉 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류를 우리는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고 여러분이 주었다고 하고 여러분이 망했다고 하고, 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죄를 지

었다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본래부터 말입니다, 우주의 크나큰 광대한 섭류를 알려면, 산하대지의 광대한,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려면 내 몸부터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나다, 이리지만 그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겁 전에 미생물로부터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화된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내가 왔다는 걸,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내 몸뚱이를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집합소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씨 여러 개가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발점에서는 미생물이었는데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점을 지금 여러분 몸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속이 또 종점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한번 타 날아서 툭 터지고 또 스러지고, 또 툭 터지고 스러지고 하는 이것이 우주 섭류의 작용입니다. 태양도 그렇지만 모든 자체가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터 터지면 그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원소 자체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로 된다는가 분자로 된다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원자로 분리가 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애가 어른이 되고 그러듯이, 또 분자에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그 마음의 씨가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습니다. 시발점에서는 쪼꼬마한 마음의 씨였는데 지금 몸뚱이 속에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류 안에 씨앗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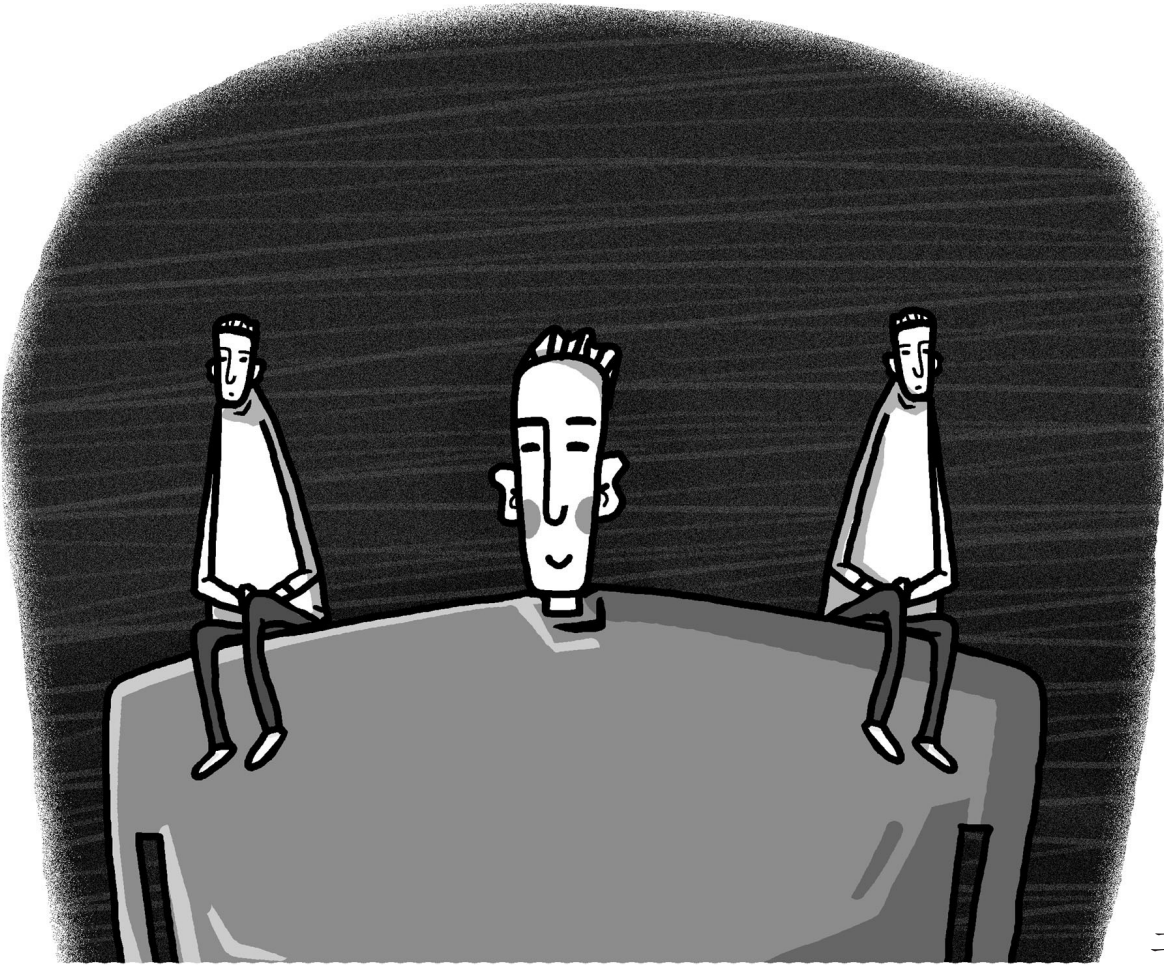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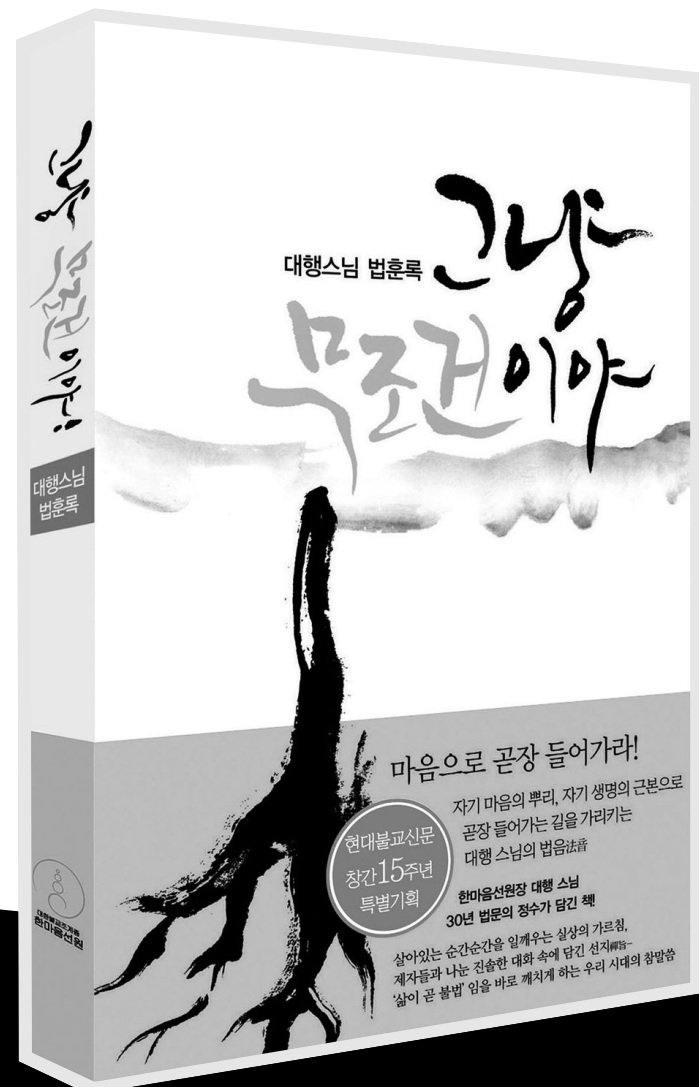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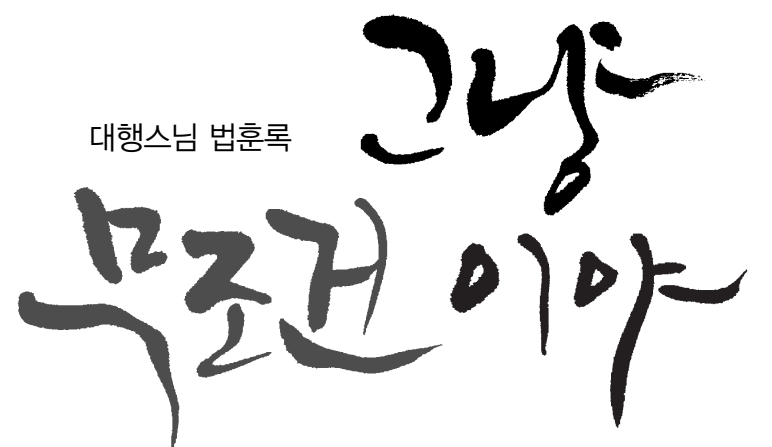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